

청소년이 선정한 '제8회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선플재단-국회선플위원회 주최로 서울가든호텔서 열려, 매년 5월 23일, '악플없는 날' 선포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12월 16일(목), 서울가든호텔에서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재일, 홍문표)와 공동으로 선플운동 참여 국회의원들과 전국 선플교사 대표단, 선플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한 해 동안 이날 하루 만이라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포했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국회의회의록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에 기록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회의록을 지난 해 9월부터 1년간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로 시상하지 못한 31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니터에 붙여줬던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박병석(무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옥주(더민주, 경기 화성시갑),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선플상에는 57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돼 여야 의원 총 61명이 선정됐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라는 응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정치인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를 유념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선플운동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2년째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시상식이 2년만에 개



▲ 12월 16일(목),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이 열렸다. 악플없는 날 선언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박진 국회의원, 천서영 리아이트고 학생, 김이관 광운대학교 학생,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의원

최되었다. 8회째 이어 오고 있는 국회의원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국회의회의록 모니터 결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다시한번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권과 인터넷평화 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사회에 긍정 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선플상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김민석(더민주, 영등포구을), 김상희(더민주, 경기 부천시병),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성주(더민주, 전북 전주시병),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영배(더민주, 서울 성북구갑), 김영호(더민주, 서울 서대문구을),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김용관(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태연(더민주, 경기 성남시수정구), 도중환(더민주, 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은(더민주, 경기 수원시정), 박대수(국민의힘, 비례),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박정(더민주, 경기 파주시을), 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갑

화군운진군), 배진교(정의당, 비례), 변재일(더민주, 충북 청주시청원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서영교(더민주, 서울 중랑구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 소병철(더민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송갑석(더민주, 광주 서구갑), 송영길(더민주, 인천 계양구을), 신현영(더민주, 비례),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기대(더민주, 경기 광명시을), 용혜인(기본소득, 비례), 유기홍(더민주, 서울 관악구갑), 윤관석(더민주, 인천 남동구을), 윤호중(더민주, 경기 구리시), 이개호(더민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광재(더민주, 강원 원주시갑), 이달근(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동주(더민주, 비례),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이용선(더민주, 서울 양천구을), 이원욱(더민주, 경기 화성시을), 이원택(더민주,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재정(더민주,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시), 이현승(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임호선(더민주,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정춘숙(더민주, 경기 용인시병), 조정훈(시대전환, 비례), 진선미(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최기상(더민주, 서울 금천구), 최연숙(국민의힘, 비례),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한병도(더민주,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민주, 서울 강서구병),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가나다 순, 존칭생략)

글 - 조응태 기자

롯데홈쇼핑·선플재단, 메타버스로 '제3회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UCC·수필 공모전 시상식 개최'

UCC부문 '아름다운 가치사전', 수필부문 '새대의 암호를 풀다' 대상수상 감정노동자의 고통을 알리고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지속 전개

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과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지난 12월 18일(토),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제3회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UCC·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과 롯데홈쇼핑 ESG팀 김현수 팀장이 감정노동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본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영상 인사말을 전했다. 이상중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과 총 32개 수상팀의 수상자들이 가상공간 메타버스 상의 시상식에 참여했다.

제3회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UCC·수필 공모전에는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총 302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독창성, 공감성, 표현력, 완성도, 인기도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UCC 부문에 감공팀(권혜영, 장성민, 최지원, 한선옥)의 '아름다운 가치사전'과 수필부문에는 박성근씨의 '새대의 암호를 풀다'가 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UCC부문 대상 감공팀의 '아름다운 가치사전(https://youtu.be/UxJuSvmQ1og)'은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주는 어머니와 성장해가는 아이의 대화가 작품을 이끌어 가며, 잊혀졌던 가치들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배려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수필부문 대상 박성근씨의 '새대의 암호를 풀다'는 엘리베



▲ 제3회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UCC·수필 공모전 메타버스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이터에서 만난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해 18층 까지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러 드리며 느끼는 감정을 서술하며, 감정노동자와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랑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감동을 전해준 작품이다.

롯데홈쇼핑 ESG팀 김현수 팀장은 "콜센터의 상담원을 비롯한 많은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자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응원과 배려의 선플달기 캠페인과 함께 이번 공모전 선정 작품을 일선 학교에서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고통받는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처우와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업계 최초로 선플재단과 함께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UCC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이후 올해로 수필 공모전을 추가해 3회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 운동 홈페이지에는 81만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50만 개를 넘어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87명(96%)이 '국회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연방 및 주 하원의원, 일본 및 필리핀의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글 - 윤상용 기자

'2021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메타버스 시상식'

인터넷 악플추방 선플 공모전 및 선플자원봉사대회 시상식 개최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29일(수), '2021 선플활동 결과 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메타버스(이프랜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플활동 보고대회는 2021년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SNS기자단 활동을 통해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펼친 우수 학생들과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에서는 '진영금융초등학교 박현성 교사가 선플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건국대학교 배준혁 학생의 선플 UCC 상영, 한국외국인학교 이예영 학생의 SNS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글로벌 선플 홍보활동 등이 소개됐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수민 학생, 법무부장관상에는 DGB생명보험 김성현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에는 버들초등학교 이상훈 교사가 수상했다.

사내 ESG활동에 선플운동을 접목하여 직장 선플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한 DGB생명 김성현 대표는 "직장 동료 간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 메타버스를 통해 '2021 선플활동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이 열렸다.

방법으로 선플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선플문화 확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이끄는 ESG 가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진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인류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고, 세계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공동노력을 하고 있지만, 편견과 불신의 언어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감염시키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선플운동 참가자들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

의 선플을 달아주자"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 운동 홈페이지에는 81여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50만 개를 넘어섰다. 글 - 이찬성 기자



성명에
사랑을
더합니다



<선플대상>

박병석 국회의원 (선플 大賞)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병석입니다.
무척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선정해 준 상이라서 더욱 뜻깊고 뿌듯합니다.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듯이 맑은 그 사람의 인격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공정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회의 품위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정인 제가 더욱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이 주는 의미가 크고, 대상 수상자로 선정

여를 사용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회의 품위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정인 제가 더욱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옥주 의원 (선플 大賞)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입니다.
먼저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해 준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주신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과 선플 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큰 상



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앞으로도 '말'이 가진 힘을 항상 유념하며, 더욱 따뜻하고 모범적인 언행으로 청소년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겨 주신 선플 SNS 기자단과 선플 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동 의원 (선플 大賞)

청소년분들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직접 선정된 '선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맑고 티 없는 청소년 여러분의 생각과 토론을 거쳐 저의 말들이 평가받았을 생각을 하니, 그동안 받아온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지고 뿌듯함이 듬뿍 느껴집니다. 정치인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를 유념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깊숙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새싹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이 내뿜는 긍정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조금 더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따스함 앞으로 도 잃지 말고 오래오래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땅의 청소년분들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선플 大賞)

시상을 위해 전국 선플 기자단 청소년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년치를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의 말



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말에는 품격과 생명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차별의 시대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힘이 되는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플상>

강은미 의원 (선플상)

선플상은 국회의원으로서 꼭 받고 싶은 상이었는데,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전국 청소년 선플 기자단분들이 많은 시간 공들여 국회의원의 말과 글을 살피고 선정해 주셨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같은 작은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보다 분노와 비판을 앞세운 말들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국가도 도통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나누는 아름다운 말과 존중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비판보다 따뜻한 햇빛이 나그네의 옷깃을 열게 했듯이, 앞으로도 따스하고 좋은 말들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나누는 아름다운 말과 존중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비판보다 따뜻한 햇빛이 나그네의 옷깃을 열게 했듯이, 앞으로도 따스하고 좋은 말들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호 의원 (선플상)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할 때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청소년들께서 선정해주셔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언어(言語)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언어는 그 어떤 물리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의 품격을 높여 서로를 위로해주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의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 만큼 정치인의 언어품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 (선플상)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지난 2개월 동안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선정해 주셨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다.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의지를 북돋기도 하지만, 나쁜 말은 사람



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비대면 소통이 대부분이 된 코로나 시대에 말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선플 운동'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사회에서 선플재단이 소통과 화합의 토론문화를 위해 애써주시듯, 저도 국회에서 아름다운 말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선플상)

정치인은 국민 대신 말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며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공익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말이 칼이 될 때', 그 말은 상대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말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소통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비방, 허위·과장 정보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우리 언어문화가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선플상)

먼저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지만,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분위기가 격화될 때에도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과분하게도 상



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막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국회에서의 정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받아들이고, 국회에서의 정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의원 (선플상)

'제8회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게 선플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선한 언어'가 득 채우고 계시는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



원은 항상 품격을 가진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충되어 정치인의 올바른 언어와 바른 말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 의원 (선플상)

먼저,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신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립국어원에 정치인의 올바른 언행과 바른 말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상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악플과 막말이 확대·재생산되는 사회 환경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을 위해 애써주신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배 의원 (선플상)

1948년 초대 국회 신익희 국회의장께서 '현재를 의미하는 사투리' 시방을 반박해 쓰시는 것과 선배의원들 발언의 감탄사까지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1대 국회 회의록을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



다. 국회의장에서는 말 한마디로 법률안과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계류되기도 하지요. 제헌국회부터 사실 그대로 작성한 회의록을 참여한 입장대립 시증거로 삼아온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만 후대에 영원히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도 앞선 시각으로 2020년 국정감사 속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선플 운동본부' 학생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호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020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특히 이 상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직접 선정해 국회의원 상이라는 것에 더욱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플상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번째 수상임에도



여전히 스스로 언행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따뜻한 말과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을 주신 (재)선플운동본부와 SNS학생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을 주신 (재)선플운동본부와 SNS학생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10대 청소년들께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상상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선플보다는 악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현



실입니다. 국회의원 또한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거칠거나 자칫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만드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의의가 더 크

김용판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의원입니다.
작년 12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수상하는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신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년들에게 직접 받은 상이라 그런지 그 어떤 상보다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고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아름다운 언어 사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플상>

김태년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 상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회 회의를 직접 분석해 선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인터넷상의 악플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야기하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13년간의 선플운동은 악플로 인해 상처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선플운동이 건강한 댓글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의 따뜻한 언어 전파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플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선한 언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종환 의원 (선플상)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이 제 말과 글을 평가하고 선플상 수상자로 직접 선정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말과 글에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쟁 속에서 격한 표현과 격양된 목소리가 오고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주신 상은 앞으로도 모범적인 언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내내 사유의 품격, 언어의 품격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오고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주신 상은 앞으로도 모범적인 언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내내 사유의 품격, 언어의 품격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은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박광은입니다.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더욱



뜻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수 의원 (선플상)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의 8번째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매우 영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선도해주시는 선플운동본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누군가 5초만에 쓴 댓글을 나는 5시간, 5일 동안 생각한다” 악플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연예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상 온라인 커뮤니티가 확대됨에 따라, 백신 없는 악플 바이러스는



비단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의 영혼까지 갇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 나아가 제도적 차원의 법적 정비가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합니다. 오늘 받은 선플상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선플상)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 박성민입니다.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신 상이구나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선한 말과 행동을 적극 권장한 초중고의 학교폭력 건수가 이전과 비교해 무려 6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배려와 응원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플 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선플운동 본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바른 말과 행동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박수영 의원 (선플상)

이해할 수 없는 관정에 의한 어제의 패배를 훌훌 털고 실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뜨거우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선플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BTS멤버 RM은 우리 선수가 역주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도 석연찮은 관정에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



국을 응원하는 네티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RM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쁜 댓글에 맞서 싸우는 댓글 대신, 보라색 하트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SNS는 보라색 하트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물결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14년간의 아름다운 말 선플상!

박정 의원 (선플상)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심사에 참여하신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 여러분과 선플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집과 직장, 육아 문제로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 아픈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름다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말이 담긴 선플이 더 널리 퍼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문화가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박진 의원 (선플상)

먼저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여러분이 직접 두 달 동안 국회의회의록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수상자를 선정하셨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긍정적인 선플DNA를 심어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의 말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회가 품격 있



고 신사다운 말을 사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협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참다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플운동이 국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널리 퍼져, 위기를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선플상)

21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많은 상을 받았지만, 지난해 받은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저에게 각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고등학생·대학생 여러분들이 국회의회의록을 직접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상하는 상이기에 때문입니다.

지난해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막말과 고성을 지양하고 차분하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원칙을 가지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가 미래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신 취지를 늘 생각하면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배진교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구나 고등학생·대학생 여러분이 뽑아주셨다고 하니,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과연 상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말을 썼는지도 생각해볼게 됩니다.

상을 받으니 더 신경이 쓰이고, 앞으로는 전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불쑥 커집니다. 선플운동 본부가 제 말을 아름답다 불러주셔서, 앞으로 제 말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여러분 덕에 마음이 따뜻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말이 칼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의원 (선플상)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20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는 말이 있듯 말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고운말은 대화하는 상대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자 소통과 화합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정활동을 하는 곳으로



모범적인 언행이 필수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의 도를 넘는 막말로 정치권이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올라 국민들을 언쟁케 하고 국회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언행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저부터 말이 가진 힘을 유념하며 배려와 존중의 언어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선플상)

먼저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미래 주역인 청소년분들이 선정해주셔서 더욱 기쁘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온라인상의 소통이 어찌면 오프라인에서의 교류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편리함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다양한 문제의 운상이 되기도 하는 듯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담은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담은 말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더 많아져 선플 문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선플운동 본부와 선플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영교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제8회 아름다운 말 국회의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선정해주셨다는 데 더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하는 발언이 청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



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말이 때론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갖는 힘은 대단하고 그렇기에 말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저 또한 이번 선플상을 수상하였지만 말의 무게에 대해 항상 되새기며 앞으로 더 꾸준히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 (선플상)

먼저,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몇 개월에 걸친 검토와 분석 끝에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쁨은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은 단기간에 속성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절제와 자기 인내를 통해 다듬어지고 숙성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



항상 좋은 말로 긍정의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생활 속에서 말의 힘을 몸소 실천하셨던 저의 어머니께 제가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는 좋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거칠고 거짓된 사술의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공정의 가치가 가득찬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플상>

소병철 의원 (선플상)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이러한 점을 늘 마음에 새겼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조근조근 선비어법으로 정곡을 찌르는 의원”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신중하고 정제된 말을 쓰려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三思一言”은 세 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조심하듯 말을 하되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을 주신 뜻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 모범을 보이며 정제된 부드러운 말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그날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존경과 배려의 언어는 소통과 화합을 이끌지만, 그 반대는 분열과 대립을 초래합니다. 정치의 언어가 특히 중요하며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향한 국민의 기대를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소통으로 행동하며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여러분께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말의 힘은 어떻게 사용할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향한 국민의 기대를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소통으로 행동하며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 송영길 의원입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께서 저를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양성의 시

대이며,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각과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악플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각과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악플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신현영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원입니다.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소감을 말씀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우선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화의 기본은 배려입니다.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예리하게 갖고 봐야 할 때라는 태도는 존중과 배

려를 담아야 발전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발언한 말들이 선플 국회의원 상위 10%로 평가됐다니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선진 국회, 선진 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양금희 의원 (선플상)

선플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는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이 있듯 말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모범적인 언행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플상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우리사회가 말과 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저부터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플상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우리사회가 말과 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저부터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영예로운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



았습시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지난 2개월간 국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수여한 상이라고 하니, 영광스럽습니다. 더욱 품격 있고 정제된 언어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리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다짐을 지켜나가며 좋은 정치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다짐을 지켜나가며 좋은 정치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 (선플상)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



습니다. 특히 이 상은 청소년분들이 직접 선정한 것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

입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습니다. 특히 이 상은 청소년분들이 직접 선정한 것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고 더 좋게 만들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장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과 소통을 더 편하게 만들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만

윤관석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의 특정 부분의 댓글창이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 폐쇄는 임시방편일 뿐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선플재단이 지

금처럼 선플달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상호 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처럼 선플달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상호 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선플상)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뽑아 준 결과라고 하니 제



게 더욱 뜻깊습니다. 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더욱이 말이 중요합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그 속의 소위원회 회까지 모든 의

사람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고 그 향기는 언어에서 풍겨 나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의 깊이와 마음의 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언제나 명확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

는 순간 국민에게 영향을 줍니다. 정치인의 말은 바로 신중해야 하며 품격 있어야 합니다. 막말과 고성으로 얼굴 붉히는 국회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말로 서로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국회를 꿈꿔봅니다.

이광재 의원 (선플상)

선플인성신문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것을 모으지만,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 기도 하고, 흠여 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아 희망을 나누는 정치인으로서 언제나 겸손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상대를 배려하고, 설득하며 포용하겠습니다.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아 희망을 나누는 정치인으로서 언제나 겸손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상대를 배려하고, 설득하며 포용하겠습니다.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의원 (선플상)

먼저 ‘2020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례하여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듯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공동체의 품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선플 운동’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다짐들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공동체의 품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선플 운동’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다짐들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동주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이동주 국회의원입니다. 선플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직접 국회 회의록을 보



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격한 말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선플 운동이 강조하는 ‘선한 언어 사용’이 우리 국회에

더 필요하 이유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에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가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표현을 써달라는 여러분의 희망이 담겼다고 봐도 되겠지요.

는 국민의 의견을 한 데 모아 토론하고 조정하는 곳이어서 아쉽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말의 힘을 알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만희 의원 (선플상)

‘2020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 화됨에 따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쉽게 대중에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약용한 폭력적인 언어와 악성

댓글, 유언비어, 각종 선동 등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인격이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댓글, 유언비어, 각종 선동 등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인격이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용선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군가에게 전달되며 들고 돌아 결국 국 화자(話者)에게로 돌아옵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때로는 혐악해지고 있는 데, 그 말이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소통의 말을 해야 하는 만큼 저 역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소통의 말을 해야 하는 만큼 저 역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선플상>

이원택 의원 (선플상)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에게 주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올곧은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행동과 언어 하나가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과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말은

그러나 가끔 이러한 말은

이재정 의원 (선플상)

'2021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국회의록을 열람하며 선정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정치권의 막달 시비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더 품격있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세우기 위해 더 노력

선후배, 동료 의원님의 아름다운 언어에도 더 많이 배우고 좋은 말로 더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말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학영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입니다.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해주신 청소년 SNS기자단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바른 언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선플운동본부의 한결같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 역시 바람직한 우리말 사용을 위한 여러분의 활동을 가까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의원 (선플상)

먼저,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으며,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며 다양한 갈등 속에 국회 내에서도 거친 언행이 오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선하고 고운 말 사용에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항상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아름다운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선하고 고운 말 사용에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항상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아름다운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국회와 갈등과 정쟁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플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플SNS기자단께서 직접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선정해주셨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며 더 나은 자세로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말 선플상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춘숙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겨울 바람이 참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정치 수준입니다. 큰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근래 갈등을 야기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말과 글이 넘실거립니다. 우리에겐 질 낮은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아름다운 말과 글을 신중히 골라, 세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플상'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며, 좋은 정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출발은 아름다운 말과 글을 신중히 골라, 세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플상'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며, 좋은 정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선플상)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의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영광입니다.



품고 있는 내용은 날이 서 있더라도 선택하는 단어나 목소리의 톤은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합니다.

통해 접점을 찾는 예술이고 그럴 때 요구되는 덕목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과 품위가 담긴 말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의 정치와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해 접점을 찾는 예술이고 그럴 때 요구되는 덕목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과 품위가 담긴 말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의 정치와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배려하는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그 말의 무게가 더욱 무겁습니다.

어모 모범이 되는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플재단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모 모범이 되는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플재단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기상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판하고, 비난 대신 격려와 공감의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에서 범람하는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은 폭력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배려와 칭찬이 담긴 댓글은 손끝에서 가슴으로 따뜻함을 전해 줍니다.

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는 말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선플운동본부와 이 상을 주신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연숙 의원 (선플상)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말'의 힘은 우리의 삶과 관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아름다운 말로 따뜻한 정치와 선플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번 선플문화를 위해 애써주시고, 선플상에 선정해주신 선플운동본부와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학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춘식 의원 (선플상)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라는 뜻으로 여기고, 악플 보다는 선플로 서로를 응원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내 주변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 오늘의 수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은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언행을 더욱 모범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오늘의 수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은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언행을 더욱 모범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의원 (선플상)

먼저, 선플상이라는 귀한 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따뜻한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선플운동'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이른바 비대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혐오와 차별의 날 선 말로 고통받는 사람들

국민을 말로써 설득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저 역시, 늘 제 언행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주신 상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말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문표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군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입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곁들여 다란 말처럼 긍정적인 말 한마디의 힘은 늘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항상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유난히 지치고 힘든 한해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서로를 닦고 배려는 악플보다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선플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선한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플사진 대상 버들초등학교 교사 이상훈〉



〈선플SNS 대상 한국외국인학교 학생 이예영〉

선플 수필

On&Off UCC 감상문

천안쌍용고등학교 2학년 안지민

2020년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온 세계와 대한민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연일 언론에서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모임 등을 축소내지는 취소하라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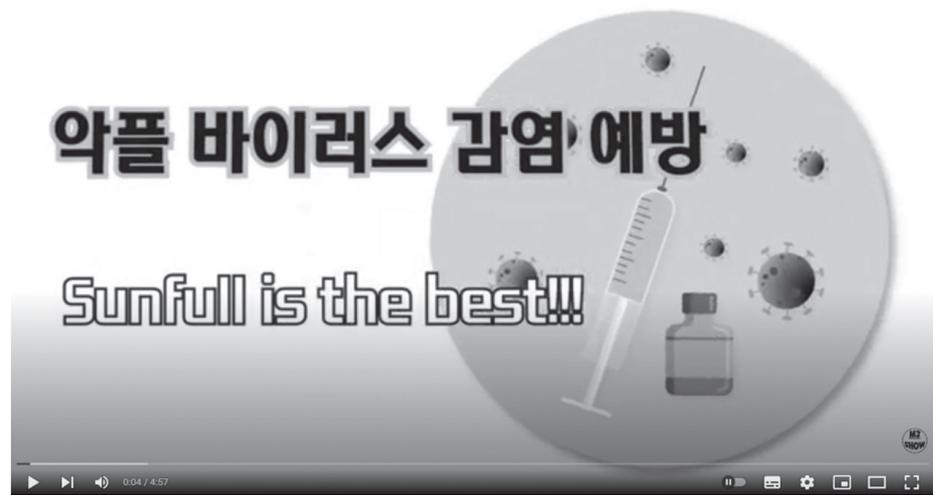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오고가야만 운영되는 상점들은 인적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작은 상점들은 상가 임대료와 운영비 등 지출이 많은 것에 비해 손님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휴업과 폐업 등이 속출하였다.

그러던 중 단골손님들이 방문하여 근근이 상점을 운영하는 한 커피숍에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

어느 단골이 그 가게의 인터넷상의 악플을 보았고 주인에게는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여 주인은 검색을 한다.

ㅋㅋ 문을 왜 여냐...
가게 망해라~~~~
방역 좀 잘하지~
그러니 그 모양이지~
ㅋㅋ안 쪽팔리냐??
ㅋㅋ 문 닫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주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이 커피숍은 무관한데 사람들은 악플을 달면서 조롱을 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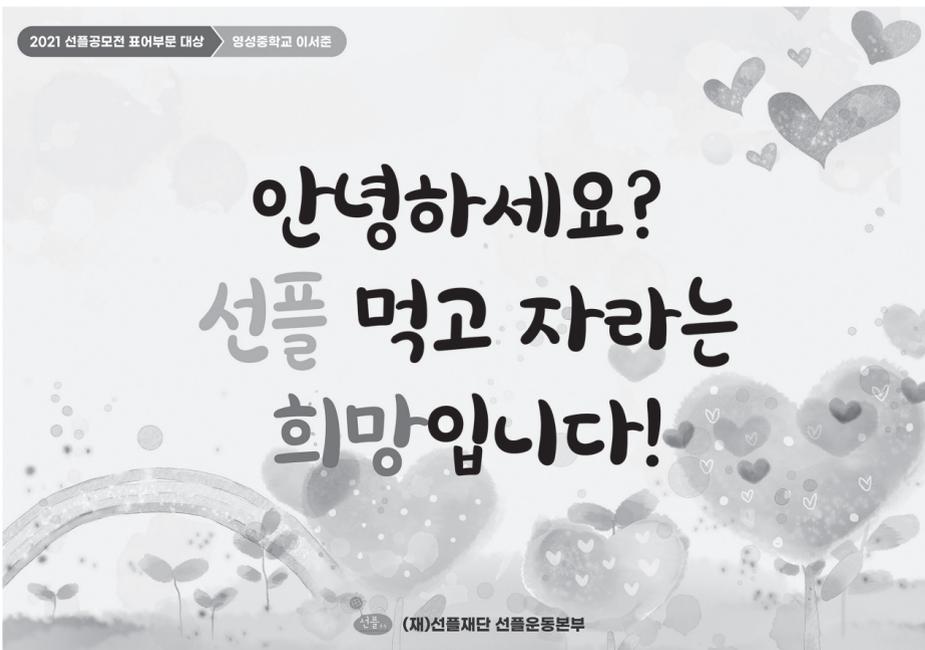
악플 ON하고 선플 OFF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던 중 손님도 없고 속상한 마음에 잠시 문을 닫기로 했다.
그러다가 선플이 등장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방역 잘하고 계신거 알아요~ 사장님 짱!!^^
저의 죄애~가게예요~ 빨리 만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상점들이 힘을 내고 다시 문을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선플이 기적을 만든 것이다.
선플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것을 이번 동영상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플은 ON하고 악플은 OFF하여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선플스피치 대상 대구상서중학교 교사 박용욱, 박미진〉



〈선플포스터 대상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 이수민〉



〈선플포어 대상 영선중학교 학생 이서준〉

【 논 문 】

현행 법리의 한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제화 방안 검토

- 선플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

대학생 선플기자단 회장 성균관대학교 김 건

I. 서론 (논의의 필요성)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확산과 함께 SNS와 포털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내밀한 사사의 영역' 내지 '정보탐색의 공간'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일종의 '연장선'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열풍에 따른 데이터경제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인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질 생활세계와의 단절을 겪음에 따라,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논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정도가 되어버렸다. 온라인의 일상화를 넘어 일상의 온라인화가 공고한 시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기술적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허위정보의 난립, 극단적 혐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등 역시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부작용은 마치 코로나바이러스를 연상케 하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공인, 연예인들에 국한되던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리없는 흉기 '악플' 공세...연예인 일반인 안가린다』, 『The JoongAng』, 2020.11.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0925 (2021.11.05.)>

청소년들 간 사이버불링은 2012년부터 2016년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현장에서] “오늘 자퇴 어때요?”...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 불링'」, 『MBN 뉴스』, 2018.12.20., <https://www.mbn.co.kr/news/society/3715734 (2021.11.05.)>; 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 신고 건수가 2012년 900건에서 2013년 1,082건, 2014년 1,283건, 2015년 1,462건, 2016년 2,122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 펜데믹에 접어들면서는 각종 사이버폭력이 한 달 만에 7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 후 혐오·악플 폭증, 선플 쓰기 백신”」, 『조선일보』, 2021.07.02.,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07/02/ZJF2IX73BJDT3AVBQ3RQGBNXCE/(2021.11.05.)>; 아시아언더십콘퍼런스에서 '선플백신'을 주제로 강연한 민병철 이사장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의 약 60%가 매일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코로나19 이후 한 달 만에 70% 이상 증가하였다.

집단 간 혐오와 악성 댓글이 난무하자 포털은 각종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명 '가짜뉴스'가 공론화됨에 따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각종 사이버폭력과 허위정보가 종적·횡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사이버폭력예방 관련 법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문제에 대한 예방보다는 규제와 처벌을 중심으로 법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버폭력예방과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은 선플활동을 통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의 경험을 비롯하여 왜곡된 인터넷 사용의 예방으로부터 달성될 수 있다. 징벌적 사후대처가 아닌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검토도(Ⅱ), 선플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분석하여 선플운동이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등 실효적 제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확인하겠다(Ⅲ). 그다음, 2019년 논의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을 중심으로 그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겠다(Ⅳ).

Ⅱ. 정보통신윤리 및 사이버폭력에 관한 제도적 한계

1. 정보통신윤리교육 현황 및 실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자 인터넷 보급률 1위라는 사회적 특성과 인터넷 문화의 왜곡이라는 실정에 비추어 보아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은 연령을 막론하고 전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에 대하여 제도권 내의 인프라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교육 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고는 국가제도적 차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법리적 관점에서 논구하고자 하므로, 이 장에서는 공교육 제도 내의 정보통신윤리교육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1992)부터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네티즌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2001년 교육부가 '정보통신윤리교육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2007년에는 학년·연령에 맞게 교육내용 차별화 및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지도 교육도 강화되었다. 안성훈, 「초·중등학교 정보교과 운영 실태 추이 분석을 통한 정보교육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한국콘텐츠학회, 2014, 536-537.

현재에는 정보·도덕·사회과의 총 7개 교과에 정보통신윤리와 관련 내용이 편제되어 있다. 정보과의 '정보사회와 컴퓨터', 도덕과의 '도덕', 인터넷 예절, '시민윤리', 사회과의 '사회', '인간사회와 환경', '법과 사회', '사회·문화', 이하 총 8개 교과에 정보통신윤리와 관련 내용이 편제되어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과정에는 정규교과과정(도

덕, 정보) 내에 '인터넷 예절'과 '정보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이 편성되어 있고, 중학교 이상에서는 1년에 1-2시간을 할당하여 이른바 '창의적체험활동(장체)' 시간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계획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교재 개발과 함께 각종 교육이 다각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의 본질을 살펴보면,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형식상의 문제로는 ① 분절적 편제 ② 선택적 이수에 따른 학습 기회 상실을 들 수 있으며, 내용적 한계로는 ③ 원론적 개념 ④ 부실한 교수 내용을 들 수 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은 정보·사회·도덕과에 각각 편제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각각의 분과와 관련된 내용만을 학습하도록 하고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총체적 교육은 등한시한다는 의미다. 정과에서는 정보사회와 역기능, 도덕과에서는 윤리적 측면, 사회과에서는 사회적 현상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체계 없이 분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이은경, 이영준, 「고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태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1),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9, 252.

한편 ②는 특히 고등교육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로, 사회과 교과목의 자율적 선택 이수에 따라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혹은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이 포함된 교과목에서도 '대입과의 연관성 부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관련 목차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③의 경우, 말 그대로 개념 위주의 원론적 교과 학습이 문제된다. 이는 별다른 의미없이 소모되는 창체시간 「[고교학점제 세미나] 정미라 교사 ①고교학점제 "수업시수부터 줄이자"」, 『에듀인뉴스』, 2019.7.16. <http://www.edu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36 (2020.4.24.)>장체는 총 24단위로 학기당 4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운영되는데 자율활동은 자치·적용활동, 창의주제활동으로, 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으로, 봉사활동은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진로활동은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취지대로 실시하지 않고 동영상 시청, 감상문 쓰기, 각종 계기교육을 위한 요식행위나 폐피상 등의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3의 경우 창체는 비공식적인 자기주도 학습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습으로 대체되거나 각 기관의 교부자료 독서 및 영상 시청과 소감문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④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을 97.3%의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연수참여 경험은 40% 미만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지현, 이은경, 이영준, 위의 글, 2009, 253.

요컨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기관이 진흥사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그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어 비중이 줄어들고, 체계 없는 분절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실효성이 없고 흥미를 저하시키는 이론적 내용을 관련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로부터 한시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일원적 내지 총체적인 법제의 부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 확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각 기관의 행정 규칙(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시책, 교육지침 등)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 일원화된 교육내용, 방법을 규정할 법률 및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2019.10.29., 1.

구조적·내용적 한계를 드러내는 현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이라는 국가목적의 외연을 확정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기속력 있는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여 각 기관별 정책을 통합·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2. 현행 법제의 한계

(1) 사이버폭력 등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내용
통상 사이버폭력 등에 관한 현행 법제도는 「형법」 제 311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주로 논의된다. 먼저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공인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이버폭력의 구성요건 및 그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모욕(侮辱)이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히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는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악성 댓글(사이버 모욕), 사이버불링 등 주요 사이버폭력이 비속어를 포함한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본 조항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주요 처벌 규정으로서 기능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명예훼손)과 제2항(허위사실유도명예훼손)은 각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형벌이론(형벌의 목적과 법률의 한계)
사이버폭력을 규율하는 당해 법률 조항은 '벌칙 규정'이다. 따라서 법률의 한계는 '형벌의 부과와 집행'을 통해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는가를 통해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벌이론을 살펴보면, 형벌의 목적은 크게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목적형주의)로 구분된다. 응보주의란 해당 범죄사실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응보(應報)로서 처벌을 가하고 사후적 범죄 억제에는 부가적 관심만을 둔다. 한편 예방주의의 경우 형벌을 규정하고 부과 및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련의 규율작용을 인지시켜 범죄를 예방하고(일반예방), 범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특별예방)에 주목한다.

먼저 이를 토대로 사이버폭력 등을 규율하는 조항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면, 사회통념상 일반법으로 ① 구성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까다롭다는 점, ② 범죄사실에 비해 그 형량이 현저히 낮다는 점, ③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이 문제 된다. 따라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국민법 감정과 유리된 처벌이 이뤄지므로 이러한 규율작용이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는 목적형 중 특별예방과 응보형으로서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사이버폭력 문제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공백'을 초래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했듯 당해 법률 조항은 '벌칙 규정'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미 일어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고 사후적으로 재범을 억제하고자 할 뿐, 당해 조항이 사이버폭력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법률적 시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중심의 범위 내지 형벌규정만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법적 보호라는 문제에 있어 커다란 법적 공백이 남게 된다. 엄벌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법적침해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의 규율 내지 정보통신윤리예에 대하여도 형벌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법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당해 기관의 정책적 방향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을 산발적으로 구비하고 있을 뿐, 대국민적 기속력과 사이버폭력예방의 의미 및 구체적 방법을 내포한 법률 및 법령은 미비하다. 따라서 피해 예방 및 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는 심각한 법적 공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선플운동의 영향력과 효과

그렇다면,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구체화 방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이 장에서는 선플운동과 선한 표현(댓글)을 읽는 행위가 가지는 영향력과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선플 교육'이 정보통신윤리 확립과 사이버폭력예방의 실효적 방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논구한다.

1. 선플운동의 범사회적 확산과 공인

선한 댓글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달기 운동이 만·관을 막론하고 주목받고 있다. 공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 문제와 그러한 댓글이 사회적 악영향으로 파생되는 사이버불링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선플활동국민운동본부(현 선플운동본부)가 발족하여 14년 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따뜻한 말과 선의의 댓글을 남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플운동에는 전국 6,000여 개 학교와 1,0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선플계단·선플운동본부는 정보통신부, 교육부, 경찰청 같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와 같은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약하여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윤상용, 「청소년들의 선플활동 참여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1, 21.

한편, 국가기관 역시 선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조응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1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2010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 크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 『2011 국가정보화백서』, 2011, 388-390.

이후 캠페인이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1월 첫째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지정하는 등 관련 운동의 지속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선플계단, 선플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 인민망 등이 함께 '2015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선플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인

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만·관 모두에서 범사회적으로 전개되는 선플운동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모든 활동의 핵으로서 공인되고 있다.

요컨대, 선플운동이 범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 선플운동 내지 선플활동을 정보통신윤리 확립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구체화 방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있어 원론적인 교과 개념의 학습과 형식적 창체시간이 문제됨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직접 선플을 달아보거나 위도가 되는 선한 댓글을 읽어보는 경험은 통상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훌륭한 하면서도 특이한 체험이 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선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국가기관 역시 이에 조응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기존 활동들을 장려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2. 선플운동의 효과

선플운동의 확산에 따라 선플활동의 다양한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선플활동 경험의 효과는 ① 선순환적 반복 노출을 통한 사이버불링 감소 및 언어활동 개선, ② 선플활동 경험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의식 고취 ③ 선의적 표현의 제3자적 효과 발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고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과 ②의 내용을 분석하고 선플 캠페인을 경험하였거나 알고 있는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③의 준부를 확인하였다.

Ⅳ.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법제화

1. 〈법률〉의 내용

선플운동의 영향력과 효과에 비추어 보아 비실효적 정보통신윤리 교육 및 사이버폭력예방제의 대안으로 '선플 교육'이 그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플운동'의 내용이 종래와 같이 일회적인 캠페인이나 기관별로 분절된 지침 및 교보재만으로 국한된다면, 한시적 이벤트에 그칠 뿐 현실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가능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시스템의 확립을 위하여 그를 규율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예방에 관하여 대국민적 기속력을 갖는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은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2019년 김수민 의원과 민병철 이사장 등 10인에 의하여 발의된 〈법률〉이 유일하다.

2. 〈법률〉의 헌법적 타당성 및 법제화 방안 검토

당해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균형성)을 준용해야 한다.

Ⅴ. 결론

급진적 '일상의 온라인화'로 말미암아 사이버폭력의 일상화 현상이 도처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내용적으로 부실한 교육제도와 처벌·규제중심의 법리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법적보호 등에 있어 심각한 제도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 문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범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선순환적 루프를 구축하여 실질적 언어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 실천적 체험과 주체적 참여 경험을 통해 교육효과를 낸다는 점, 활동이 누적됨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여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예방과 정보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가주도적 제도 확립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 확립과 사이버폭력예방에 대한 현행 시책 및 행정규칙은 체계와 실효성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현행 법률은 사후적 처벌만을 규율하므로, 대국민적 기속력을 갖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적 선플교육'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상당한 수준의 검토를 통해 엄격한 의미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도의 국가적 제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법률은 사이버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시행령을 통해 실천적 교육의 방향성을 구축하며 교육의 지속을 위한 보상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앙제도에 기반하여 각 기관은 통합적이고 상호 연결적인 실효적 교육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조응태	인쇄 · 장용호	
발행처 (제)선플계단		본사 066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서초타운트리플스 802호	
대표 전화 02)535-3449			
편 집 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청소년이 선정한 '제8회 아름다운 말 국회 의원 선플상' 시상식



선플재단-국회선플위원회 주최로 서울가든호텔서 열려, 매년 5월 23일, '악플없는 날' 선포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12월 16일(목), 서울가든호텔에서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재일, 홍문표)와 공동으로 선플운동 참여 국회의원과 전국 선플교사 대표단, 선플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한 해 동안 이날 하루 만이라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포됐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플대상에는 박병석(무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옥주(더민주, 경기 화성시갑),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선플상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 등 57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돼 여야 의원 총 61명이 선정됐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시상식이 2년만에 개최되었다. 8회째 이어 오고 있는 국회의원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의 목소리 모니터링 결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다시한번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롯데홈쇼핑·선플재단, 메타버스로 '제3회 감정노동자배려문화 정착UCC·수필 공모전 시상식' 개최



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과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지난 12월 18일(토),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제3회 감정노동자배려문화 정착UCC·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과 롯데홈쇼핑 ESG팀 김현수 팀장이 감정노동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본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영상 인사말을 전했고, 이상중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과 총 32개 수상팀의 수상자들이 가상공간 메타버스상 시상식에 참여했다.

제3회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UCC·수필 공모전에는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총 302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독창성, 공감성, 표현력, 완성도, 인기도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UCC 부문에 감공팀(권혜영, 장성빈, 최지원, 한선우)의 '아름다운 가치사전'과 수필부문에는 박성근씨의 '때때의 안호를 풀다'가 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롯데홈쇼핑 ESG팀 김현수 팀장은 "콜센터의 상담원을 비롯한 많은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자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응원과 배려의 선플달기 캠페인과 함께 이번 공모전 선정 작품들을 일선 학교에서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1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메타버스 시상식'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29일(수), '2021 선플활동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메타버스(이프랜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플활동 보고대회는 2021년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SNS기자단 활동을 통

[2021 선플 10대뉴스]

해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펼친 우수 학생들과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에서는 '진영 금병초등학교 박형성 교사'가 선플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건국대학교 배준혁 학생의 선플UCC 상영, 한국외국인 학교 이예영 학생의 SNS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글로벌 선플 홍보활동 등이 소개됐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수민 학생, 법무부장관상에는 DGB생명보험 김성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에는 버들초등학교 이상훈 교사가 수상했다.

사내 ESG활동에 선플운동을 접목하여 직장 선플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한 DGB생명 김성환 대표는 "직장 동료 간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선플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선플문화 확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끄는 ESG 가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진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인류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고, 세계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공동노력을 하고 있지만, 편견과 불신의 언어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감염시키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선플운동 참가자들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선플을 달아주자"고 강조했다.

◆ 선플인성교육,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정규 교과목 선정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이상중)는 전국 최초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의 '선플인성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 정규 교과목에 선정하고,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플인성교육'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이 2007년 최초로 창안한 '선플운동'에서 비롯됐으며, 현재 전국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80여만 명이 참여하여 인터넷 상에 900만개의 선플이 달리게 되었다. 그동안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으로 활발한 참여가 있어 왔으나,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중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2022년부터 교명변경) 교장은 "선플인성교육은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안"이라며, "인터넷 선플달기, 선플 피켓을 활용한 아침 등굣길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교내 선플 포어·글짓기·UCC 공모전, 청소년이 뽑은 선플 국회의원 선정 프로젝트, 청소년에게 친절한 선플가게 선정 등 다양한 선플 실천 활동들이 학생들의 건전한 디지털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플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선플운동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악플과 사이버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 유베이스, 선플 통한 건강한 ESG 조직문화 조성



유베이스(대표이사 허대건)와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5월 11일(화), 유베이스 부천2센터 찰리스에서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베이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 핵심 가치를 확산하고 실행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유베이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대내적으로는 임직원들이 온라인 선플 서명에 참여하고 직장 내 게시판을 활용하여 'You made my day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청소년 선플 동아리 활동 지원, 선플강사양성 프로젝트 후원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허대건 유베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선플운동실천협약을

통해 만여명이 넘는 고객대근로자가 있는 유베이스 임직원들이 고객과 웃으며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폭력적인 언어습관이 악플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선플운동 확산이야말로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직장내 응원과 배려의 선플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이루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콜센터의 특성상 고객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확산될 되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는 한편 직원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국신용정보원, 선플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4월 28일 신용정보원에서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플운동의 확산과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서는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선플 서명에 참여한 후, 직장내 동료들간에 "당신의 선플 한줄이 오늘 하루를 살맛 나게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에게 칭찬, 공감, 배려의 말과 메시지, 행동을 전하는 "You made my day 캠페인"을 전개하며, 연 1회 이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이수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청소년 선플동아리 활동지원, 선플강사양성 프로젝트 후원 등 각종 공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현준 원장은 "신용정보원은 조직문화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상호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직원 간에 실천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선플운동 추진을 통해 칭찬, 공감, 배려가 넘치는 따듯하고 즐거운 일터가 되고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한층 다가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용정보원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동참하는 선플운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직장내 칭찬과 배려의 선플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긍정의 에너지가 확산되어 갈등 해소와 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는 한편 직원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선플운동 동참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3월 23일(화), 신한생명(대표이사 사장 성대규), 오렌지라이프(대표이사 이영중)와 서울 중구 신한타워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통합 '신한라이프'의 출범을 100일 앞두고 있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플운동의 확산과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의 CEO 내정자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앞으로 출범할 신한라이프의 임직원들이 선플운동 동참을 통해 생명보험업의 본질을 되새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직장내 칭찬과 배려의 선플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긍정에너지가 확산되어 갈등해소와 화합을 통해 생산성과 매출향상을 이끌어 내고 결국 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



서울시의회의(의장 김인호)와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3월 5일(금),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을 갖고, 아름다운 언어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플운동 확산과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이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재)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선플운동 자원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서울시의회와 선플재단은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과 청소년 인성교육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 노력과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108명의 의원들이 선플실천선서서 서명을 통해 선플실천운동 동참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선플재단으로부터 서울시의회 108명의 명단이 새겨진 선플정치선언 동판을 전달받은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막달과 욕설, 비방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솔선하여 응원과 배려를 통한 따듯한 정치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플재단에서는 서울시의회 여야 정당을 대표하여 선플 정치활동에 공로가 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 이상훈의원, 국민의힘 성중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전달한 민병철 이사장은 "선플서명에 동참한 서울 특별시의원들이 공감과 배려의 언어를 통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한 해 동안 이날 하루 만이라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포됐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DGB생명, 선플마일리지 인증 직장 1호 선정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과 DGB생명(대표이사 김성환)은 2월 9일(월) 10시, DGB금융센터에서 응원과 배려의 선플직장문화 조성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플재단은 DGB생명을 대한민국 금융기관 선플마일리지 인증 직장 1호로 선정했다.

'선플 마일리지 인증'이란 구성원들이 선플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봉사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선플문화를 확산하고 기업내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DGB생명은 선플재단과 함께 사내 선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선플 캠페인 활동, 선플봉사활동의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연말에 시상하는 등 다양한 인터넷 봉사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식 이후, 민병철 이사장의 '아이디어를 현실로(Ideas to Reality)' 특강이 이어졌다. 강의는 DGB인사이트(Insight)의 일환으로 줌(Zoom)을 통해 DGB생명 직원들에게 라이브로 방송됐다.

DGB생명 김성환 대표는 "직장 동료간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선플운동이 매우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긍정에너지를 확산하는 선플운동은 행복한 가정과 직장을 만들게 되고,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틱톡-선플재단, 안전한 인터넷 만들기 앞장



숏폼 모바일 영상 플랫폼 틱톡과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2월 8일(화)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스마트컨퍼런스홀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선플운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 이후 틱톡과 선플재단은 2월 9일(화),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매년 2월 두번째 화요일)'을 맞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7일간) 틱톡에서 #선플운동 챌린지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틱톡과 선플재단은 선한 영상을 통해 네티즌들의 인식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플운동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다. 챌린지 기간 동안 긍정적인 댓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플 릴레이도 함께 진행됐다.

틱톡의 류동근 상무는 "지난 14년간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선플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악플을 추방하고 긍정에너지를 확산하는 선플실천 방법이 틱톡의 참여로 선한 댓글에서 선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